

이주일의 책

구한말 호남 의병장 송사 기우만의 ‘송사집’ 완역

■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송사집’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구한말의 의병장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문집 ‘송사집(松沙集, 발행 흐름출판사)’을 완역, 출간했다. ‘송사집’은 기우만의 문인인 양회갑(梁會甲)의 주도로 1931년에 간행된 책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권



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연구책임자 김건우)은 1981년에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해 지난 2020년 12월에 11권을 번역, 출간했고, 지난 2021년 12월, 나머지 7권을 출간해 18

권의 책으로 완간했다. 기우만은 할아버지 노사 기정진의 학맥을 계승한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항일투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상상력 자극하는 거대 건축물들

■ 도현신 ‘건축전쟁’

‘건축전쟁(지은이 도현신, 출판 이다북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대 건축물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흔적은 지워졌지만, 그 안에 묻든 핏빛은 여전히 세계 역사, 민족의 번영, 종교적 열망을 담아 세운 거대 건축물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줄곧 해온 일 가운데 하나가 비와

바람을 막고 침입자로부터 보호받을 집을 짓는 것이었다. 식량과 물자가 풍족해지고 이를 비축할 공간이 필요해지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는 데 열심이었다. 이들 거대한 건축물 중에는 지금은 몇 개의 흔적



만 남긴 채 기록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바벨탑, 파로스 등대, 콜로서스 거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우솔레움 영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황금궁전, 예루살렘성전, 공중정원에서 한 무제의 상원원과 곤명지, 신라의 황룡사, 고려의 격구장과 흥왕사까지. 역사적 사실에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집필해온 작가는 이 책에서 세계사에 큰 자취를 남겼으나 지금은 역사 속에 지워진 거대 건축물들과 만난다.

/이종근 기자

“행복한 반짝임은 늘 우리 곁에 있어!”

■ 양선 ‘반짝이’

‘반짝이(지은이 양선, 출판 소원나무)’는 세상의 모든 반짝이에게 바치는 책이다. 어느 날 세상에 내려온 작은 ‘반짝이’. 반짝이는 이뽀처럼 반짝반짝 빛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닌다. 반짝이가 빛나고 싶은 곳은 빛나는 다이아몬드 위도 아니고, 화려한 불꽃의 곁도 아니고, 달빛을

받아 일렁이는 물결 위도 아니었다. 반짝이는 우연히 한 아이의 눈동자에 생긴 반짝임에 이끌려 아이의 눈동자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곳은 바로 반짝이가 찾던 곳이었다. 이제 반짝이는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반짝이는 행복했다. 반짝이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눈동자의 주인공이 바로 나, 우리일 수도 있다. 제2회 사계절 그림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양선’ 작가의 첫 작품으로 반짝이는 모든 것, 반짝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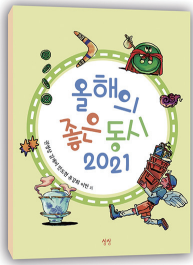
/이종근 기자

동시도 골라 읽는 시대가 됐다

■ 권영상 ‘올해의 좋은 동시 2021’

‘올해의 좋은 동시 2021(지은이 권영상, 출판 상상)’는 1년 동안 각종 매체에 발표된 신작 동시 가운데 59편을 선정, 출간했다. 선정위원인 권영상, 김계미, 안도현, 유강희, 이안 시인이 2021년을 결산하며 내놓은 키워드는 ‘변화’였다. 무

엇보다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동시 역시 어린이 독자를 위한 동시를 뛰어넘어 어른들도 즐겨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국 동시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선정위원들의 선정 경위를 살펴보는 일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동시가 바뀌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동시가 실려 있는 모든 문예지를 대상으로 59인의 작품 59편을 가려 뽑아 한자리에 모았다. 여기 수록된 동시들은 한국 동시의 현재를 보여주는 질 좋은 거울이다. 앞으로 한국 동시가 나아갈 길 또한 이 동시집에 실린 작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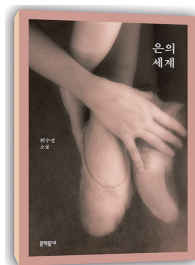
/이종근 기자

기꺼이 불청객이 되고야 마는 여자들

■ 위수정 ‘은의 세계’

일견 안온해 보이는 삶의 커튼을 들추고 그 아래 드리운 그늘을 들여다보는 신에 작가 위수정의 첫 소설집 ‘은의 세계(문학동네)’가 출간됐다.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무덤이 조금씩’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인생과 그 사이에 출몰

하는 사람의 숙명을 섬세하고도 날카롭게, 고통스럽지만 차분하게 그려낸다”(심사위원 구효서, 은희경)는 평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후 사 년 동안 부지런히 써온 여덟 편의 작품이 묶였다. 위수정 소설이 지닌 독특함은 표제작 ‘은의 세계’에서 두드러진다. ‘하나’와 ‘지한’ 부부는 팬데믹으로 처지가 어려워진 하나의 사촌동생 ‘명



은’을 청소 도우미로 고용한다. 명은은 오빠 ‘경은’과 함께 하나의 부모에게 맡겨져 자랐는데, 하나는 자신과 그들이 마치 친남매 같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한은 하나가 명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둘 발견할 때마다 그 이야기의 어딘가에 빈틈이 있다고 느낀다.

/이종근 기자

참혹해서 매혹적인 사랑과 통증 언어들

■ 이병철 ‘사랑이라는 신을 계속 믿을 수 있게’

‘사랑이라는 신을 계속 믿을 수 있게(지은이 이병철, 출판 걷는사람)’는 시 언어의 원초적인 미학을 선보이며 세계의 불화 속에서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신’이라고 명명하는 다양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

시인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를 무한수의 신안이 열리기 시작”(“7월 8일”)하는 곳에 서 있다. 시인에게 이 세계의



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는데 ‘나’라는 일인칭이 되고, ‘당신’이라는 이인칭이 되기도 하며 “패배하는 신, 죄를 짓는 신, 구름을 보다 우는 신, 무릎이 까인 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신”(‘사랑이라는 신을 계속 믿을 수 있게’) 등 비인칭으로 명명되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인의 범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시적 사유는 확장하고, 그래서 대상과 사물, 세계와 존재를 구원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사랑한다.

/이종근 기자

혁명과 해학을 노래하는 평화의 파이터

■ 정덕재 ‘치약을 마중 나온 찻술’

‘치약을 마중 나온 찻술(지은이 정덕재, 출판 걷는사람)’은 199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덕재의 다섯 번째 시집. 농담과 해학, 촌철살인의 입담이 주특기인 시인은 집적 능청스러운 태도로 현실 세계를 풍자하기는 광대처럼 건넌다.

아슬아슬함 속에서 신명을 발휘하는 힘이 시집에 담겨 있다.그가 들여다보는 풍경은 우리가 사는 요지경의 축소판이라 떨떠름하면서도 반갑고 그러면서



도 애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조문은 받지 않는다며/은행 계좌번호만 남겼다”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부고를 준비하는 노인만 남아 있다”는 한탄 속에서도 그는 “코다리찌미 맛있는/부여군 어느 장례식장에 가본 지 오래됐다”(‘고향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고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시는 중년이다. 시집에서는 자본주의의 축소판인 아파트에 사는 도시민의 일상이 여러 차례 중계된다.

/이종근 기자

김요수필 /제자 이승연

간서치(看書痴)

소관섭



조선시대의 이덕무(李德懋)는 174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집이 가난하여 어렵게 살았으나 책읽기를 좋아하여 스물한 살인 1761년에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으로 ‘간서치전’이라는 자서전을 썼다. 그는 규장각에서 검사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서적을 정리하고 조사하여 교정하였다. 그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33책 71권을 남겼다.

이덕무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조 임금의 특별한 배려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서자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고 벼슬을 할 수도 없었지만 정조는 비록 서자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분은 인재로 등용하였다. 이덕무는 당대 최고의 선각자라 불리는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등 실학자들과 친하게 지냈다.

나도 책읽기를 좋아한다. 이덕무 선생에 비하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되지만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내가 그 동안 읽은 책은 대부분 문학 작품이 많다. 평생동안 문학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는 소설을 많이 읽었다. 소설이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썼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교훈적이다. 그동안 감명깊게 읽은 소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감명깊게 읽은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다.

주인공 장발장은 남편을 잃은 누이와 어린 자식들의 굶주림을 그대로 볼 수 없어 빵을 훔치다 붙잡혀 5년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몇 번이나 탈옥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결국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긴 감옥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장발장은 성당에서 하

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비둘기인 반항심 때문에 은그릇을 훔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붙들려 신부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장발장은 마리엘 신부 역시 자기를 경멸하며 원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선물로 주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용서해 주었다. 그는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했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원망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마리엘 신부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 앞에 원망과 분노의 응어리가 녹아처럼 녹아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시장이 된다.

나는 ‘레미제라블’을 통하여 장발장을 변화시킨 힘은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랑과 용서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소설이기는 하지만 천한 죄인이라도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 훌륭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독서를 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TV와 휴대폰 때문에 독서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삼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많은 독서를 해야 한다. 이덕무 선생처럼 책만 보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은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사진도 찍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다. 특히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만 권의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책과는 비교가 안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지인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독서하기가 좋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그 동안 읽지 못한 명작이나 전문 서적을 읽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리라 생각된다. 바보처럼 묵묵히 책을 읽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 작가 소관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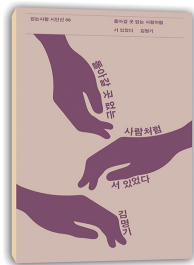
‘수필문학’으로 등단
익산문인협회, 익산수필문학회 회장 역임
원광여고 교장 역임
수필집 : 생각의 숲에서 길을 묻다

슬픔이 슬픔을 알아본다

■ 김명기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지은이 김명기, 출판 걷는사람)’는 삶의 끝자락에서 퍼 올린 선한 시집으로 온몸으로 기록한 사람의 변주곡과 같다.

2005년 계간 ‘시평’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은 ‘밤과 시’ 사이에 자신을 오롯



하게 드러내고 받아쓴 사람의 기록이다. 그 사람의 아픈 여정을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다. 고백은 힘이 세다. 시집 전반에 걸쳐 속울음을 품고 있어서 어두운 빛깔이긴 하나 쓸쓸하지만은 않다. 고백의 힘은 시인의 선하고 지극한 사람이 시어의 능동성과 어우러져 묵직한 울림을 던지고 있다. 이번 시집에서 돋보이는 점이다.

/이종근 기자

아주 먼 길 떠나버린 아내에게 바친다

■ 서정복 ‘부칠 수 없는 편지’

‘부칠 수 없는 편지(지은이 서정복, 출판 문학들)’는 모두 72편의 시가 5부로 나누어 실렸다. 이 가운데 제5부의 4편은 시인의 아내가 쓴 글이다. “내 아내 윤영자는 나보다 먼저 시인이었다. 칠순이 넘은 내게 시를 공부하라 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2017년 7월 18일 아주 먼 여행을 갔다.” “특별히 사랑하고 이름 지어 남기지는 않았으나, 일가장과 편지글의 일부를 뽑아 여기에 올린다” 처음으로 시를 쓰라고 권했던 사람. 그러나 정작 시인이 되어 시집을 낼 때는 아주 먼 길을 떠나 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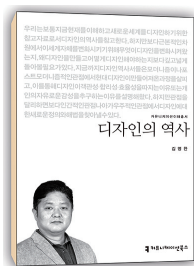
에 없는 사람. 그런 아내를 위해서는 시인의 마음이 그윽하다. 그런 아내가 떠나고 어느 날 시인은 분홍색 보자기 속 신문에 곁에 말아져 있는 삼베 천을 발견한다. “그 이름을 한 번 불러봅시다/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까슬까슬한 이 천으로 옷을 지어입고/산책하듯 갈 것인데/당신의 숨씨를 자랑하며/품낼 것인데”(‘부칠 수 없는 편지’) 이번 시집은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편들이 적잖는데 주로 제2부에 실려 있다.

/이종근 기자

디자인은 기술 변화를 유토피아로 이끄는 힘

■ 김영찬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역사(지은이 김영찬, 발간 커뮤니케이션북스)’는 디자인은 기술 변화를 유토피아로 이끄는 힘이 되고 주장한다. 한때 우리는 가장 합리적·객관적·보편적인 디자인,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더니즘은 여러 이상을 중 하나였을 뿐이다. 모더니즘이 현대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면 포



스트모더니즘은 이를 부정하고 붕괴시켰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광풍을 지난 지금도 우리만의 디자인을 제시해야한다. 디자인의 역사를 둘러봄으로써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다.

/이종근 기자

어원과 어근으로 풀어낸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 발간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출판사’에서 출판됐다. ‘태초부터 현재까지, 전 인류에게 문화적, 사상적, 문명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다’라는 참된 명제에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경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성경은 거짓이 없는 역사책이며, 빼어난 문학작품이자 인류의 보편타당한 규범을 제시하는 도덕책이고 고전

중의 고전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자타공인 성경임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기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수많은 오번역을 바로 잡은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공인성경본문에 해당하는 스테판(1550)헬라어 사본을 원어의 어원을 파악하고, 일대일 직역 방식으로 번역한, 국내 최초의 번역성경이다.

/이종근 기자

